vc radar

벤처관련 news

산자부, 중소기업을 위한 창원 공동물류센터 준공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산업단지 공동물류지원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창원 공동물류센터의 준공식을 지난 1월 13일 개최했다. 공동물류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자체 물류시설 확보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에게 보관, 공동배송, 재고관리 등 종합적인 물류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체제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납품업체가 많은 중소기업들은 소량배송의 물류형태가 많아 효율화가 어렵고 기존 물류시설의 임대비용이 높아 물류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안되어 왔다.

이에 산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7월 온라인 물류 인프라인 웹기반의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번에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공동화 · 정보화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창원 공동물류센터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에 연면적 6227평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앞으로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권 중소기업의 물류체계 혁신과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중기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의 75.8%" 조사결과 발표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에서 이들 업체들이 자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세계 최고의 75.8%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1만 300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416개 기업을 표본 조사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기술개발 활동, 기술수준, 기술개발 투자현황, 기술개발 성과, 기술개발 애로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세계 최초 개발기술 보유기업은 9.8%, 일부 선진국에서 개발되었지만 국내 최초 개발기술 보유기업은 46.2%로 조사됐다. 또 최근 3년간(2002~2004) 평균 9.3건의 기술개발을 시도하여 5.7건을 성공해 61.1%의 기술개발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의 성공요인으로는 최고경영자(CEO)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밖에 애로요인으로는 기술개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금 부족과 연구설비 및 기자재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 전문인력 부족률을 보면 전체적으로 16.9%의 부족률을 보였는데, 그 중 박사가 31.7%, 석사가 22.3%로 고급인력일수록 부족현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기청, 중소 · 벤처기업 상담전화 1357 개통

중소기업청은 중소 · 벤처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종합 지원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종합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번없이 전화번호 1357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사항상담은 중소기업청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담당자 연결상담 코너를 이용해 중소기업청 및 14개 유관단체 5000여 명에게 자금, 신용보증, 인력, 판로, 창업, 기술개발, 정보화 관련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다. 전문상담가 350명에게 법률, 회계, 세무, 건축, 특허, 컨설팅 관련 전문분야를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상담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한국특허정보원,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조사 · 분석 업무협약 체결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은 지난 1

월 20일 울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및 울산단지혁신클러스터추진단과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 · 분석업무 및 정보의 상호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중소 · 벤처기업의 특허출원지원 및 특허정보제공과 관련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기술 동향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조사 · 분석 연구 ▲중소 · 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해소 ▲특허정보, 특허분쟁 등에 대한 상호 세미나, 워크숍 실시 ▲중소 · 벤처기업 특허출원지원을 위한 자료의 수집 · 분석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교류 및 공동 활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특허지원방안을 공동으로 수립 · 지원함으로써 산업 및 업체의 특허분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울산지역 중소 · 벤처기업의 기술연구 개발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화는 물론, 특허정보의 활용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산업발전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OTRA,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업무협정 체결

KOTRA(사장 홍기화)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이사장 박인철)는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하고 대덕특구 소재기업들의 해외마케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정 체결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는 KOTRA를 대덕특구의 해외마케팅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조사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술력은 우수하나 상대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취약한 대덕특구 중소 · 벤처기업들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KOTRA의 해외조직망 중 IT산업이 발달한 국가 소재 무역관을 대덕특구의 해외마케팅 거점으로 활용키로 하는 한편, 대덕특구 내에 소재한 기업들을 위한 해외투자유치 로드쇼도 추진할 예정이다.

홍기화 사장과 박인철 이사장은 "업무협정 체결로 대덕특구 육성을 위한 동반자 관계가 구축됨에 따라 특구 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진공, 중소기업의 전략적 국제기술교류지원 강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홍경)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의 파트너기업과 기술자를 알선하는 기존의 국제협력 업무 중, EU와 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 국제기술교류를 확대 지원한다.

중진공은 전 세계적으로 원재료 조달경쟁이 심화되고 기술개발에 대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이번 전략적 국제기술교류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발굴과 도입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4개의 해외사무소와 금년 상반기 개소예정인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 기술협력센터, 그리고 200개의 해외협력 약정기관 및 민간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을 체계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외국인전문가초청지도사업,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등 기존의 중진공 지원 프로그램과 도입기술의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기업혁신에 필요한 자금 및 컨설팅을 연계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국제협력처(02-769-6859, 6851)로 하면 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지원제도 대폭 확대 시행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가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 우대지원제도에서 자금 및 판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술개발부문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약 3030억원 규모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주 ·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에 착수해 상용화에 성공한 무선통신 열배관감시시스템을 향후 3년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협약을 부영산전(대표 엄주엽)과 체결했다. 이로 인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투자비절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술개발사인 부영산전은 장기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상생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R&D 예산의 일정액을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성과 공유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상생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발된 기술은 다른 지역난방사업자도 활용이 가능토록 하여 집단에너지부문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사업 news

대전광역시, 해외박람회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모집

대전광역시는 일본 구주 등 8회에 걸친 시장개척단과 독일하노버박람회 등 8개의 세계 유명박람회에 IT · 전기전자제품 및 수출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참가할 벤처 · 중소기업체를 모집한다.

- **신청기간 :** 2006년 2월 10일(금)까지
- **신청자격 :** 해외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대전시 홈페이지(www.metro.daejeon.kr) '시정소식'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지원내용 :** 임차료, 홍보비, 통역비, 시장조사비 등 공통경비(항공료 및 체재비는 참가업체 부담)
- **접수 및 문의처 :** 대전광역시 국제통상과(팩스 042-222-0262)

시장개척단 담당- 최정희(전화 042-600-3672, 이메일 jeong1026@hanmail.net)
박람회참가 담당- 이정규(전화 042-600-2243, 이메일 leejk9824@nate.com)
또는 KOTRA 대전충남무역관(전화 042-864-1717, 팩스 042-864-1716)

여성벤처협회 news

한국여성벤처협회 부산경남지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송혜자) 부산경남지회가 지난 1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회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총회에서 지회장 김경조 경성산업 대표 등 6명의 임원을 선출하고, 주요사업소개 및 동의대학교와 산학협약 조인식을 체결했다. 부산경남지회는 지역 여성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블루오션 창출 및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다.

'2006 동경비즈니스 쇼' 박람회 한국관 구성 및 참가 안내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는 '2006 동경 비즈니스 쇼' 박람회에 참가할 여성 기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참가기업에게는 마케팅, 현장지원,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행사기간 :** 2006년 5월 17일(수) ~ 5월 19일(금)
- **장소 :** 동경 Big Sight
- **모집대상 :** 여성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11개사
- **모집분야 :** 사무자동화기기, 소프트웨어, 문구류, 데이터 통신 장비 등
- **모집기간 :** 2006년 1월 16일(월) ~ 2월 28일(화) 선착순 접수마감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전액 및 기본 장치비 70% 지원, 홍보물 제작 및 통역
- **문의처 :** 한국여성벤처협회 박희용 팀장
  (전화 02-6009-8505, 이메일 kovwa@kovwa.or.kr)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ovwa.or.kr) 참조

대덕R&D특구 news

中 온령시, 대전 첨단기업 초청 협력방안 물색

중국의 공업도시 온령시(시장 협해연)가 대전의 첨단기업들을 초대했다. 지난 1월 10일 부터 14일까지 안중기 대전시의원을 단장으로 총 17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온령시의 각 기업과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시찰단은 첫날 시장과의 만찬을 시작으로 온령시의 도시계획과 다양한 산업현장을 돌아본 후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일대일 미팅을 통해 5건의 협약 성과를 얻었다.

▲유니플라텍과 온령시화우복장회사와의 특수기능의류 생산사업 ▲위월드와 동포농업개발유한회사의 이동위성안테나사업 ▲에이팩과 태주장성기계유한공사의 통신용열교환기 생산사업 ▲에이팩과 태주장성알르미늄유한공사의 CPU냉각기 생산사업, ▲경주물산과 태주장강기계유한공사의 원예용공구 생산사업 등이 그것이다.

협해연 온령시 시장은 "이번에 이뤄진 성과는 앞으로 온령시와 한국 기업 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되어 더욱 활발한 우호협력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vc scrap

코스닥 부활·정부 혁신中企 지원에 '제2 벤처 붐' 기대

외국계 벤처캐피털이 다시 돌아온다

▲ 2006년 1월 20일 한국경제 A3면
정부 지원과 투자심리가 살아나는 등 '제2 벤처 붐'에 대한 기대로 외국계 벤처캐피털의 국내 활동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혁신중기 육성 올 12兆지원

산자부 업무보고 2008년까지 3만개로 늘리기로

▲ 2006년 1월 18일 파이낸셜뉴스 2면
정부가 벤처기업을 비롯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올해 12조원을 지원하는 등 혁신 중기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